태양가족

2009. SPRING TAEYANGMETALINDUSTR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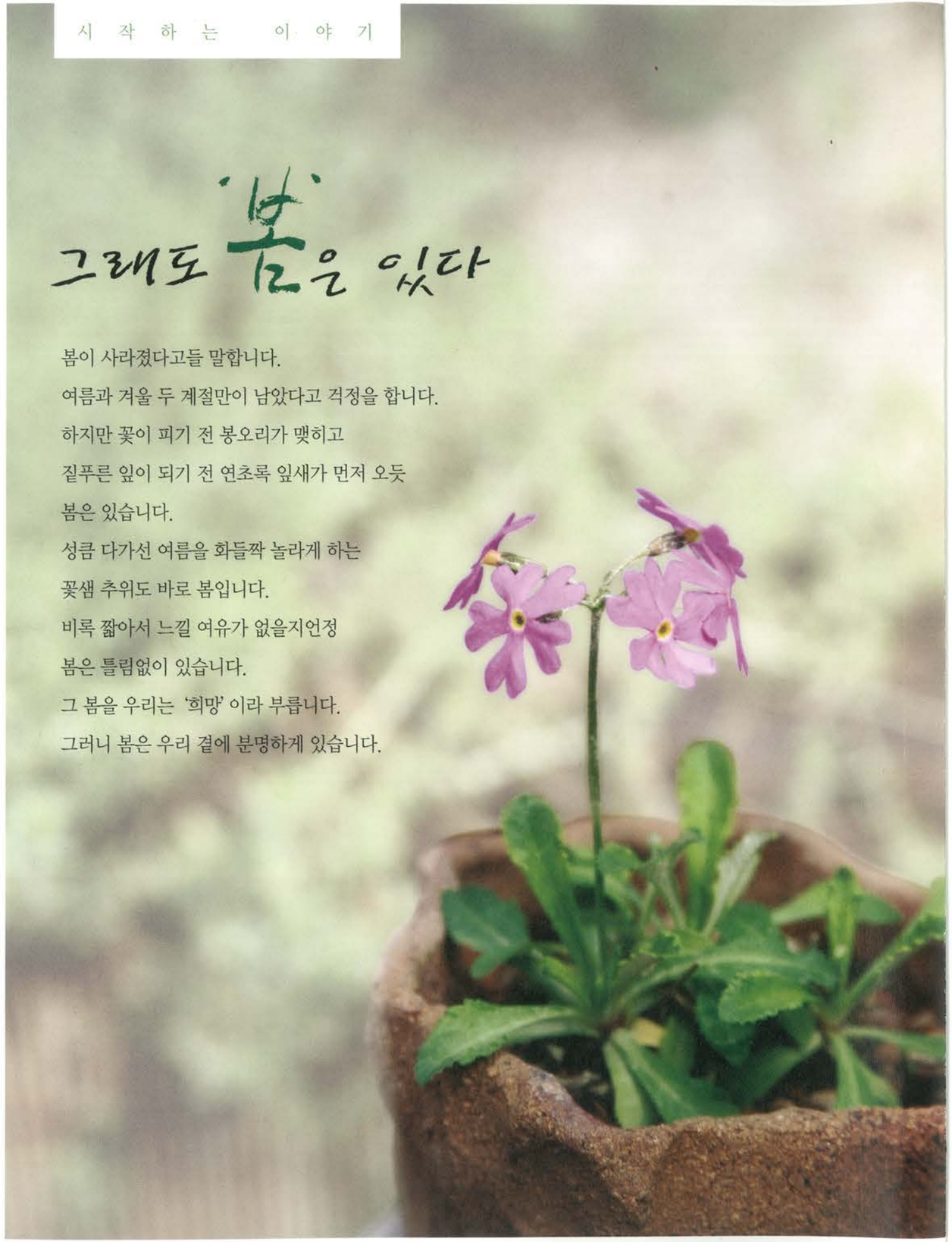
아름다운 이음으로 세상을 밝혀라

태양은 이음이다

조사가 없으면 완전한 문장이 되지 않는 우리말처럼 태양의 제품 하나하나는 기술과 기술을 이어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 연결고리다. 반쪽을 이어 완벽한 하나를 만드는 일. 태양의 제품 하나 하나는 기술을 이어 세상을 밝히고 사람을 향하는 아름다운 이음이다.

그래도 봄은 있다

봄이 사라졌다고들 말합니다.
여름과 겨울 두 계절만이 남았다고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꽃이 피기 전 봉오리가 맺히고
짙푸른 잎이 되기 전 연초록 잎새가 먼저 오듯
봄은 있습니다.
성큼 다가선 여름을 화들짝 놀라게 하는
꽃샘 추위도 바로 봄입니다.
비록 짧아서 느낄 여유가 없을지언정
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봄을 우리는 '희망'이라 부릅니다.
그러니 봄은 우리 곁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SPRING

Contents

04	창업주의 가르침	우리의 責任 우리의 能力 우리의 誠實
06	나와 태양	한우삼 회장
09	이 한권의 책	코드 그린
10	기획특집	글로벌기업으로 가는 길
13	언론에 비친 회사	안산공회의소 한우삼 회장 재선임
14	협력업체 탐방	탄탄하고 내실있는 사업파트너 한일산업
16	이음의 미학 I	조사가 있어 아름다운 우리 말
18	사이언스의 재발견	세상을 이기는 지혜, 확률
20	TY人	태양, 막내들의 뜨거운 도전
22	Special Theme	메모의 기술
24	발길따라서	아침고요 수목원
26	사우동정	인사발령 및 입사
28	태양뉴스	2009년 2월 3일 경기도지사 당사 방문

태양금속공업(주) 사보 2009년 '봄'호 | 발행일 2009년 5월 1일 | 발행처 태양금속공업(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595번지 031)490-5518
www.taeyangmetal.com | 기획 · 편집디자인 큰하늘 031)402-0876 | 사진 조한동

창업주의 가르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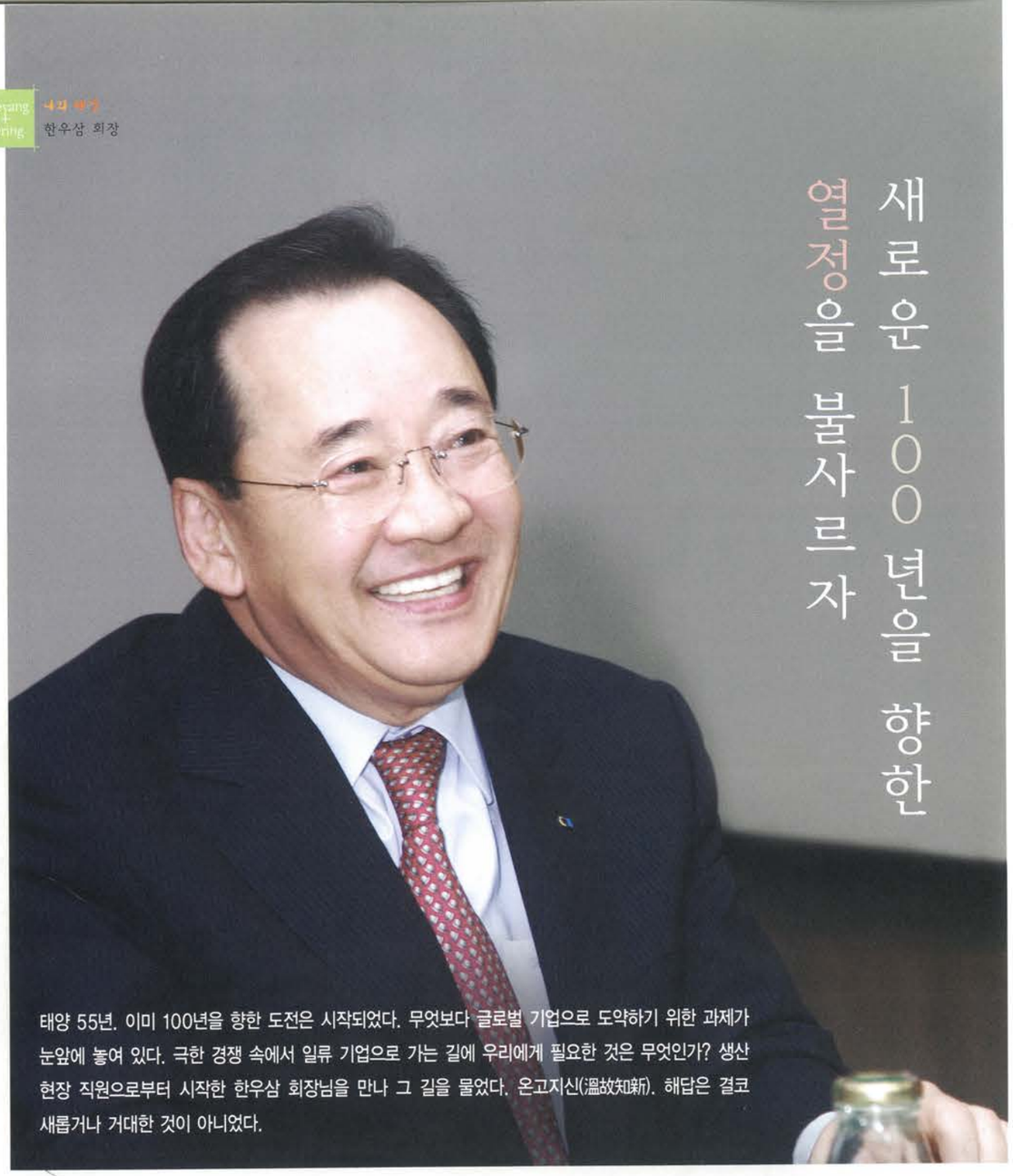
우리의 責任

우리의 能力

우리의 誠實

1972년 3월 13일

고 한은영 명예회장님께서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어려운 일이 가끔 생기게 마련인데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되는 만큼 우리는 회사일 뿐 아니라 항상 어려운 일이 눈앞에 닥친다 해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굳건한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회사가 직면한 경제적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전임직원이 자기가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가정과 회사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열정을 불사르자

태양 55년. 이미 100년을 향한 도전은 시작되었다. 무엇보다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가 눈앞에 놓여 있다. 극한 경쟁 속에서 일류 기업으로 가는 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생산현장 직원으로부터 시작한 한우삼 회장님을 만나 그 길을 물었다. 온고지신(溫故知新). 해답은 결코 새롭거나 거대한 것이 아니었다.

첫 근무부터 지금까지 주로 맡아왔던 부서와 일들

1970년 초 연건동 공장시절에 태양금속공업(주)에 입사하였고 생산파트 품질관리부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직접 제품을 만들 줄은 몰라도 제품 특성은 알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후에 경영에 참여했을 때 제품을 모르는 사장이라면 어떤 직원이 안심하고 일을 하겠습니까? 한국생산성본부주관 품질관리사 2급 자격증을 딴 것도 그 때문이었죠. 지금도 돌이켜 보면 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은 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에 풍납동 제2공장으로 옮겨와 부공장장과 공장장을 거치면서 본사와 합병된 후 전무이사로 회사의 전반적인 살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양금속의 주력분야는 바로 인간경영

돌아보니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공장장 시절 최고 경영자의 아들이라는 말은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정받겠다는 내면의 의지와는 다르게 1,700명이 넘는 직원들의 시선을 항상 의식해야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전직원의 이름을 외워보자는 생각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모두 가슴에 명찰을 달고 다녔으니까요. 몇 달을 걸려 암기에 들어갔고 반응은 새해 첫 출근 때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송년회를 마치고 임원들과 전직원이 악수로써 덕담을 나눌 때 일일이 직원들의 이름을 불러준 것이 새해 벽두부터 화두가 된 것이지요. 곧 많은 변화가 뒤따랐습니다. 경영주의 아들이 아니라 공장장 한우삼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직원들과는 더욱 친숙해져 생일이나 자녀들 돌잔치에 수없이 불려 다니는 행운도 얻었죠. 방이동(당시는 몽촌이라는 정겨운 이름으로 불렸음)이나 오금동의 작은 방에 꽉꽉 들어앉아 어깨를 비비며 막걸리와 소주를 밤새 비우던 생각도 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인간경영을 그렇게 시작한 셈이지요. 그리고 이 원칙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태양금속을 이끌어 가는 근원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남모르는 애환속에 키워 온 경영인의 자세

두 번째 에피소드는 나의 아버지 고 한은영 명예회장님과 있었던 일입니다. 그 때도 공장장 시절이었는데 당시 명예회장님께서 내가 자리에 없을 때 현장 순시를 하시면서 생산담당자(이동흠 과장)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자전거용 스포크에 사용하는 닛풀에 일자(一字)슬릿트를 하지 말고 십자로 만들어 일자나 십자드라이버를 다 사용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죠. 그 후로 수출용 닛풀에 겸용 헤드타입을 적용해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명예회장님께서 다시 현장 순회중 그 제품을 보고는 어떻게 된 일인지 생산담당자에게 물어 보시게 되었고 담당자는 공장장 지시라고 대답을 한 모양입니다. 호출을 받고 올라가 왜 이런 지시를 했느냐는 회장님 질문에, 이동흠 과장이 회장님 지시사항이라고 말하

므로 제가 그렇게 생산하도록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공치사는 간 데 없고 회장님 오른 손바닥이 내 볼에 쩍! 하고 불벼락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니 자기가 한 짓을 남한테 떠넘기는 것이 더 나쁘다며 계속 야단을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작업복 차림으로 뛰쳐나와 한양대 살곳이 다리까지 무작정 걸었죠. 마흔 가까운 나이에 직원들에게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오해나 받느니 회사를 그만두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런데 불현 듯 70에 가까운 회장님의 연세가 떠올랐습니다. 아차 하는 생각에 황급히 택시를 타고 회사로 돌아가 너무 죄송한 생각에 눈물을 왈칵 쏟고야 말았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진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강인하고 완벽한 아버지인줄만 알았으니 참으로 죄송스러웠습니다. 명예회장님께서 떠나신 후에 배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곁에 계시다는 것이 매우 큰 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였어도 고통을 나누니 더 행복했다

요즘도 옛날 풍납동 공장 때를 많이 그리워합니다. 지금보다 살기는 몇 배 더 어려웠지만 훈훈하고 따뜻한 인간애가 넘치던 시절이었죠. 책임자는 부서 직원들 대소사는 물론 부엌에 숟가락 개수도 셀 정도였으니까요. 회사 창립 이래 55년 동안 각종 대소사의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특히 우리 회사는 그 모든 어려웠던 일들을 슬기롭게 그리고 빠르게 모두 해결했으며, 그 원천의 힘은 태양금속만이 갖고 있는 가족애와 사랑으로 뭉쳐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자기의 부하직원을 공적으로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해 주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것이니까요.

오늘 우리의 자세를 고 한은영 회장님으로부터 배운다

고 한은영 회장님의 가르침은 세월이 흘러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게 만족하지 못하므로 어렵고 괴로운 중에서 즐거움을, 평범한 가운데 진리를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작은일 이라고 소홀히 하지 말고 큰일 이라고 겁내지 말며, 스스로 복 받는 직원이 되자"는 말씀 속에는 담담하면서도 의연한 기개가 넘칩니다. 고객은 왕이라는 현대 마케팅 개념을 이미 38년 전에 '공급은 신속하게, 친절하고 정확하게' 라는 말씀을 통해 실천하신 것은 또 어떤가요? 품질과 능률과 운영 모두를 국제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는 3대 목표를 정하신 것도 이미 40여 년 전 일입니다. 일상적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취적 경영과 임직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날의 문제를 옛 사람으로부터 배우니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 할만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100년을 향한 열정이 필요한 때

지금 태양금속공업(주)는 한 단계 더 높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단순 단조제품에서 모듈 시스템 제품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화합이 곧 발전이라는 진리를 55년 태양의 기업문화를 통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영진은 모든 직원이 글로벌 시대를 이끌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직원 하나 하나는 특별히 남다른 각오와 헌신의 의지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자랑스러운 태양금속을 만들어 나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어 옵니다. 고 한은영 명예회장님의 말씀이지만 낙천적이면서도 우직한 삶의 철학이 묻어나는 명구로 태양 100년의 초석을 다짐해 봅니다. ❋

"아침에 일어나서 희망을 갖고 출근하고
낮에는 열심히 노력하며 일하고
저녁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자."

Taeyang Spring 이 한 권의 책
코드 그린

지속가능한 세계를 향한 한 미국 저널리스트의 외침
-코드 그린, 뜨겁고 평평하고 붐비는 세계-

저자 : 토머스 프리드먼 출판사: 21세기북스

미국 중심주의라는 한계는 있지만 방대한 자료로 그린혁명의 현재와 미래가 돋보이는 수작

600여 쪽에 이르는 두터운 이 책을 어떤 네티즌이 다음과 같은 한마디로 요약했다.

'미국은 당장 신재생에너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정부 주도로 집중 투자하여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

저자 토머스 프리드먼이 다만 위 내용만을 주장하기 위해 책을 쓰지는 않았겠지만 비슷한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미국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내용은 지구의 위기를 말하지만 해결은 '미국 주도' 라는 인식이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미국 중산층의 소비적 삶이 후진국 국민들의 목표가 되도록 만든 잘못도 인정하지만 미국이 바뀌면 그들도 바뀔 것이라는 우월감도 역시 한 몫 한 듯 보인다. 한마디로 미국인이 아니라면 은근히 부아가 치밀어 오르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감정만 내세우면 부담스런 책값도 아깝거니와 보통 책의 두 배는 족히 넘는 내용을 독파하는데 쏟은 시간 때문에라도 속이 쓰릴 것이다. 감정만 조금 누그러고 읽는다면 절대로 돈과 읽는 수고가 아깝지 않은 책이 바로 「코드 그린 뜨겁고 평평하고 붐비는 세계」다. 특히 '지구를 구하는 100가지 방법' 과 같은 말랑말랑한 캠페인으로는 절대로 지구를 살릴 수 없고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지원, 그리고 그린 산업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기억할 만 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 책은 「세계는 평평하다」,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와 함께 저자의 성공작 중에 하나다. 책에서 프리드먼은 현재 세계가 공통으로 처한 핵심 문제를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코드그린을 제안한다. 에너지 및 천연자원에 대한 수요 증가와 부족, 석유 독재국으로 이동하는 부, 기후변화, 전기 부족에 의한 에너지 빈곤, 생물 다양성 감소가 다섯 가지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시장의 활용, 기후 대책 등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코드그린이라 부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이 갖는 덕목은 코드그린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국가에 적용하더라도 유용한 실천과제임을 보여주는데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이 하면 '그린 아메리카' 고 한국이 하면 '그린 코리아' 라는 얘기다. 세계가 무질서와 과도한 경쟁이라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어떤 나라이든 에너지와 기후 문제, 그리고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그린코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느려터지고 안일한 미국정부에 대한 저자의 안타까움과 걱정은 한국인으로서 우리 정부와 나라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는 마음과 조금도 차이 날 게 없기 때문이다.

평소 느슨한 환경정책에 대해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 책이 훌륭한 답을 줄 것이다. 환경과 관련이 있든 없든 정부의 모든 정책입안자, 정치인들도 꼭 보아야 할 책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영인들이 블루오션과 친환경이 병립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원한다면 반드시 보아야 할 양서다. ❋

글로벌 태양으로 새로운 50년의 비전을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는다.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운명을 바꾼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마인드는 우리의 운명과 태양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2014년 6월5일 저녁 10시(한국시간).

TMC(태양금속의 영문 약자)의 해외본부장인 P상무는 컴퓨터와 연결된 헤드세트를 통해서 유럽법인장의 보고를 경청하고 있다. 화상 회의 시스템에 비쳐진 유럽 법인장의 얼굴은 다소 피곤해 보였으나 목소리는 활기차고 시원시원하다. 그간 공을 들여 추진해 온 독일에 본사를 둔 세계적 기업인 *Bach GmbH와의 수주가 확정되었다는 빅뉴스를 다소 상기된 목소리로 보고하고 있다. 글로벌 TMC에서 야심차게 개발한 T 프로젝트의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Bach GmbH는 당사의 제품을 표준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유럽 소재 공장은 물론 세계 각국에 소재해 있는 동사의 공장에도 당사의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본 제품은 TMC 본사에서 핵심부품을 생산하고 인도 공장에서 나머지 부품을 생산 및 조립하여 TMC 유럽 현지법인의 창고를 경유하여 Bach GmbH에 공급하는 것이다. 보고를 받은 P상무는 회의에 함께 참석한 인도 법인 공장장인 카말 씨로부터 생산 공급에 따른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을 청취한 후 향후 TMC의 중국공장, 멕시코 공장에서도 본 제품의 생산을 확산 적용하여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고객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빠르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연구할 것을 각 법인장에게 지시하고 화상회의를 마쳤다. 각국의 시차 때문에 늦게 시작한 회의는 이미 새벽 1시를 향하고 있었다. P상무는 본건으로 인한 향후 글로벌 TMC의 매출과 시너지 효과를 생각하면서 퇴근을 서둘렀다.

* Bach GmbH는 가상업체로 바흐(주)임.

인도법인

향후 당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상상해보았다. 그러나 과연 그저 상상에 불과한 것일까?

지금은 모두가 힘들다고 하면서 세계가 아우성이다.
2007년 초 미국 플로리다 등의 작은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된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가 급기야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붕괴 위기로까지 몰고 가면서 사상 초유의 글로벌 금융위기, 신용위기로 확산되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글로벌 대호황이라고 난리를 치며 주가, 유가, 원재료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는데.....

이러한 금융위기의 불씨가 실물경제로 옮겨 붙으면서 자동차 업계의 기초 체력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유럽 시장은 가히 위기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 빅3(지엠,포드,크라이슬러)의 상황은 구제금융을 통한 회생이냐 아니면 파산이냐의 백척간두의 처지에 있어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집중하고 있다. 빅3가 파산할 경우 무려 25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하니 그 피해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다. 빅3의 미국 내 매출은 예년대비 32%~45% 하락했으며 일본계 자동차 회사도 역시 큰 폭의 매출하락(23%~33%)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한국 자동차 업계도 비켜갈 수 없는 상황으로서 관련 업계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고 태양의 가족도 이점을 깊이 실감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은 50여년 동안 크고 작은 시련을 많이 경험하였으며 특히 IMF의 혹독한 시련도 극복하였던바 이러한 경험은 어떠한 도전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작금의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세계를 향한 수출 및 글로벌 경영을 들 수 있겠다.

태양은 중국 연대 지역에 생산 공장을 세운 것을 필두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 장가항, 인도 첸나이, 미국 디트로이트에 생산 공장 및 판매법인을 설립하여 글로벌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태양은 내수 시장에서의 절대적인 점유율 우위를 바탕으로 국내 판매 위주의 전략에 치중하였으나 글로벌 경영을 도모하면서 해외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고 본사에서의 직접 수출 증대 및 해외법인과 연계한 전략적인 마케팅 접근을 하고 있다. 50여 년간 쌓아온 태양 본사의 노하우와 설비를 바탕으로 해외 공장과의 네크워크를 활용하여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각 해외법인별로 정확한 원가를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본사 및 해외 법인별로 갖추어진 설비를 검토하고 지역별 물류비용을 점검하여 가장 최적의 조건을 고객에게 제시하여 제품의 수주율을 높이고 있다.

"한자로 위기는 두 가지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위험'이고 다른 하나는 '기회'이다.
(When written in Chinese, the word "crisis" is composed of two character- one represents danger and the other represents opportunity.)"
- Jhon F. Kennedy-

중국법인(연대)

중국법인(연대)

미국법인

중국법인(장가항)

물론 품질은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해외법인의 품질을 본사 수준으로 끌어올려 고객이 가질 수 있는 품질에 대한 염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아울러 복합적인 생산, 판매체제를 구축하여 본사 및 해외 공장과 연계한 공정 분할 생산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에서는 단조를 하고 중국 공장에서 지오메트 도금을 하여 미국 법인을 통하여 판매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복합 생산 판매 체제에서는 생산에 따른 제조원가 차이, 물류비에 따른 원가 상승 요소 외에 환율이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달러화대 원화 환율, 미국 달러화대 중국 인민폐 환율 및 달러화대 인도 루피 환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최종 가격이 도출되므로 최근과 같이 환율 변동이 심하게 움직일 경우에는 환율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점을 찾아서 수익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글로벌 경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태양은 환리스크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1년에 2회 적용환율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회의를 개최하여 환율 적용 및 그에 따른 리스크 회피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갖추어야 할 것은 태양 가족들의 글로벌 마인드라 할 수 있겠다. 그동안에는 수출입 업무를 주관하는 직원들이 가끔 해외 출장을 갔으나 당사의 해외 공장의 설립과 가동에 따라 전 부문의 직원들의 해외 출장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글로벌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된 것도 하나의 수확이라 할 수 있다. 해외 현지 직원들에 대한 기술 전수를 위한 생산직 직원의 장기 파견 근무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기초적인 마인드를 바탕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글로벌 마인드가 필요한 시기이다. 기본적인 품질 만족을 위해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의 저변 확대가 필요하며 품질, 납기, 가격 면에서 글로벌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글로벌 경영으로 새로운 50년 역사를 써나가는 태양에 있어서 최근의 여러 정황들은 '위험'과 '기회'를 내포하고 있으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순전히 태양 가족의 몫이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는다.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운명을 바꾼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마인드는 우리의 운명과 태양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50여년 전에 자전거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출발하여 자동차용 주요 볼트를 만들면서 국내 업계 최고의 자리를 누렸던 태양금속은 이제 볼트를 넘어 다양한 단조 제품과 가공 및 아세이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태양의 지난 50년이 국내에서의 확고한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수출 및 글로벌 경영으로 새로운 50년의 역사와 비전을 우리가 만든다는 각오로 크게 웃으면서 힘차게 걸어가자.

글_ 태양금속공업(주) 해외프로젝트팀 조정훈 부장

안산상공회의소 한우삼 회장 재선임

언론에 비친 우리회사

세계속으로 도약하는 태.양.금.속.공.업

안산상공회의소 한우삼 회장 재선임

안산상공회의소는 지난 3월 20일 3층 회의실에서 제46차 임시 의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한우삼 회장(현 태양금속공업(주) 회장)은 45명의 안산상의 의원중 36명의 의원이 참석한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추대되어 9대에 이어 10대 회장에 선출되었다.

한우삼 회장은 서울 출신으로 동성고, 동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71년 태양금속공업에 입사한 후 2003년 대표이사 회장에 올랐으며, 지난해 3월 안산상의 9대 회장으로 취임했었다.

한우삼 회장은 오는 2012년 3월까지 3년간 안산상공회의소 회장직을 맡게 되었으며, 당선 인사를 통해 "지난 1년간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하며, 이제 새로 회장에 추대하여 주셨기에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사무국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회원사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회원사 서비스를 강화시키며,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의 사업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유턴기업, 충분한 혜택 마련"

데일리안 뉴스 (2009-02-04)

3일 오후 김문수 경기지사는 안산과 오산에 소재한 중견기업 두 군데를 방문해 기업인들과 머리를 맞댔다.

◇ 태양금속을 방문한 김문수 경기지사

먼저 김 지사는 안산에서 자동차 엔진 등에 들어가는 강철나사를 제조하는 태양금속공업(주)을 찾아 경제위기를 실감했다. 완성차 업계의 자동차 생산대수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가 오랜 기간 대기업 입지금지로 영세화 되고 있다는 회사측의 설명. 게다가 땅값은 치솟아 기업들이 입주를 꺼린다는 점 때문에 새로운 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청취했다.

김 지사는 "서해안 일대 간척지가 매우 넓은데, 적합한 곳에 기업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부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에서 이 일대를 농업용지로 사용할 뜻을 밝히고 있는데 기업부지가 더 필요하다는 기업인들의 현장목소리를 가감없이 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탄탄하고 내실 있는 사업파트너 한.일.산.업

한일산업은 1984년 설립 이래 과감한 설비투자와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20여 년 간 꾸준한 성장을 하여 아연말화성피막 업계의 선두에 우뚝 선 회사다.

자동차용 볼트, 파이프류, 건설용 볼트SET GEOMET처리 및 마찰계수 안정화 처리 등 주요 사업을 통해 시화공단의 제1공장을 필두로 2004년 반월공단과 2006년 충주시에 잇달아 제2, 3의 공장을 설립한 탄탄하고 내실 있는 태양금속공업의 사업 파트너다.

한일산업의 주력 생산 방식인 지오메트(GEOMET)는 환경 친화적인 표면처리로 개발된 고성능의 방청 처리제다. 전세계의 심각한 환경 문제로 중금속이 이슈화 되면서 유해 물질 등의 법적 규제가 더욱 까다롭게 진행됨에 따라 중금속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다크로처리와 동일한 공정으로 보다 높은 방청 성능을 발휘하는 지오메트는 미래 산업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전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규격 채택을 시작했고 토목, 건축, 조선, 가전, 방위산업 등 다른 분야까지 폭 넓게 확산되고 있다.

김대표는 "경기는 최악의 나날이지만 직원들 간의 신뢰는 어느 때보다 높다. 임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지금의 위기는 반드시 희망이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한일산업은 중소기업으로서는 드물게 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데 품질, 비용, 기술면에서 경쟁력 있는 세계 최고수준의 표면처리 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구슬땀이 묻어 나온다. 1998년 한양대 건설연구소와 함께 강교량용 고장력 볼트 이음부의 릴렉세이션 및 미끄러짐 시험 수행을 시작으로 볼트-너트 체결용 토오크 안정제 개발, 자동차부품 표면처리 기술개발 및 적용, 추진기관 볼트의 토오크 및 부식특성 시험평가 등 수많은 연구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위기는 반드시 희망이 될 것... 김기무 대표이사는 "생산 · 판매활동도 중요하지만 건실한 기업일수록 연구개발에 매진해야 한다"며 "미래의 성장동력을 위해서라도 연구소는 반드시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불어 닥친 미국발 경제한파는 한일산업에게도 예외를 허락하지 않았다. 자동차용 부품을 주 생산품으로 제1, 2공장의 매출이 작년에 비해 50% 가까이 급감하는 등 고통의 순간을 견뎌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일산업은 경제난을 이유로 단 한명의 직원도 구조조정을 하지 않은 채 '무소의 뿔' 처럼 묵묵히 앞을 보고 걸음을 내 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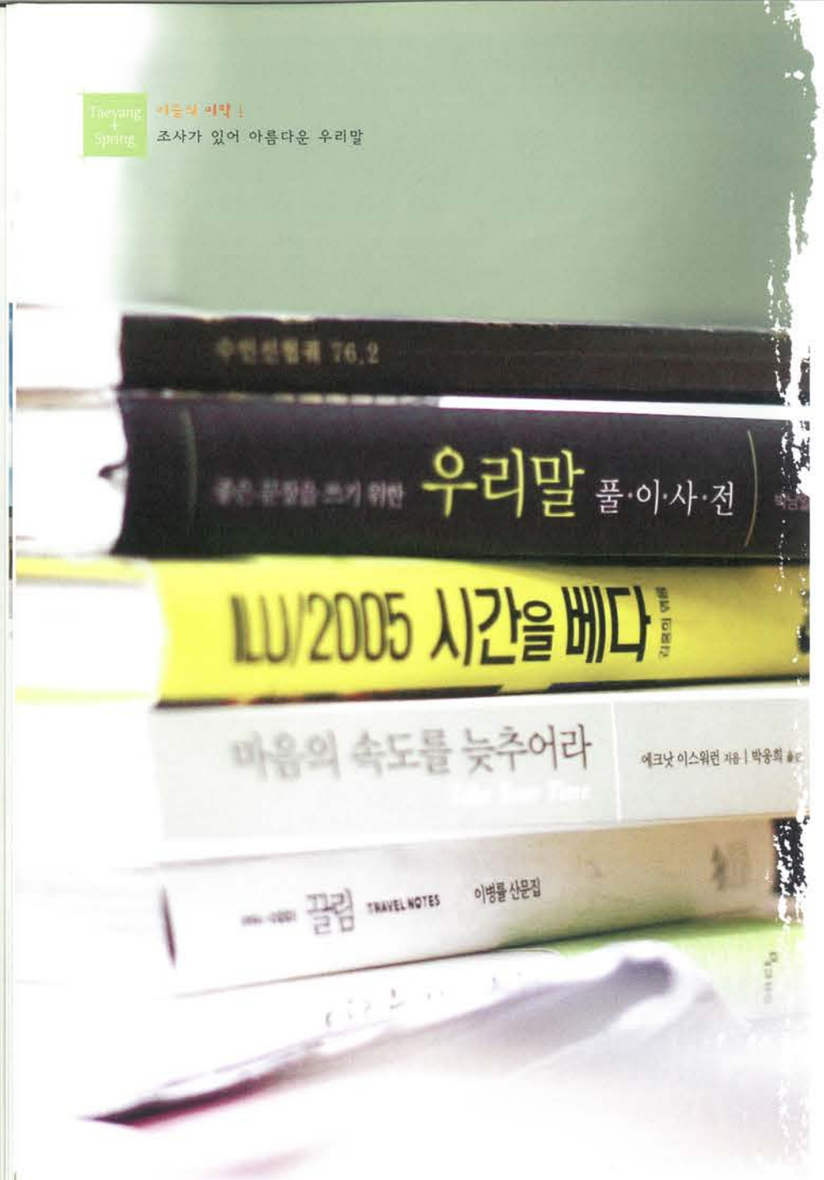
대표이사의 인재상은 직원들에게도 전염되는 모양이다. IMF때도 임직원들이 고통분담을 통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일까? 한일산업은 이직률이 다른 업체와는 다르게 거의 없단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소중한 평생직장인 셈이다. 김대표는 "경기는 최악의 나날이지만 직원들 간의 신뢰는 어느 때보다 높다. 임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지금의 위기는 반드시 희망이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김기무 대표이사는 직원으로 출발해 CEO까지 올랐다. 가족 중심의 회사 운영이 기조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 풍토에서는 보기 드문 경우다. 1982년 한일산업의 모태가 되는 회사와 인연을 맺었고 일본에 건너가 동료들과 함께 배를 곯아가며 선진기술을 배워오기도 했다. 직원으로서 열정과 땀을 믿고 달려온 시절이었다.

5명이 근무했던 조그마한 공장이 지금은 3개의 공장으로 사세가 커졌다. 2곳의 투자회사까지 있으니 놀라운 성장이다. CEO로서 직원들과 동고동락하는 김기무 사장의 노력이 있었고 그 결과 지금의 한일산업이 존재하는 것이다.

CEO 김기무의 꿈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완제품 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가겠다는 의지를 곧추세운 것이다. 공장을 안내하는 내내 신념과 자신감에 찬 김대표의 모습은 자신의 목표가 결코 허언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듯했다.

'생각하자 그리고 실천하자'는 사훈처럼 새로운 도약의 출발선상에 한일산업은 우뚝 서 있었다.



「조사가 있어 아.름.다.운 우리말」

우리말의 특징 중 하나는 조사(助詞)가 다양하고 그 풍부한 쓰임이 미세한 표현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우리말에만 조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어와 단어 사이에 들어 풍성한 언어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말 밖에는 없다.

예를 들어 다음 구절을 보자.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김훈의 소설 「칼의 노래」첫 문장이다. 김훈은 처음에는 '꽃은 피었다' 라고 썼다가 며칠 후 고민에 고민을 더하다 담배를 한 갑이나 태우고 난 뒤 '꽃이 피었다' 로 고쳤다고 고백했다. 그 이유를 작가는 자신의 책 「바다의 기별」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면 '꽃은 피었다' 와 '꽃이 피었다' 는 어떻게 다른가.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꽃이 피었다' 는 꽃이 핀 물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술한 언어입니다. '꽃은 피었다' 는 꽃이 피었다는 객관적 사실에 그것을 들여다보는 자의 주관적 정서를 섞어 넣은 것이죠. '꽃이 피었다' 는 사실의 세계를 진술한 언어이고 '꽃은 피었다' 는 의견과 정서의 세계를 진술한 언어입니다."

다시 말해 작가는 주관적 자기정서를 배제하고 싶었던 것이다. 칠천량에서 대패한 원균의 함대 잔해와 수군의 시체들이 넘실거리는 남해바다에 오는 봄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도륙과 약탈, 풍전등화에 놓인 나라의 운명 앞에 봄이라니 당치도 않다. 그래도 자연은 인간의 일에는 무심한 듯 섬들의 땅으로부터 화려한 꽃들을 밀어 올린다. 귀를 찢던 전장의 포성이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움직임도 멈췄다. 부상의 고통에 신음하던 소리도, 엄마를 찾는 아이들 울음소리도 다 묻히고 오직 꽃들만이 재잘거리며 피어난다.

작가는 이 명징한 풍경을 전하고 싶은 것이다. 좀처럼 볼 수 없는 대비를 통해 독자들이 당시의 냉정한 현실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한다. 현실을 직시하려면 주관과 의견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객관이 머물러야 더 또렷해진다. 그래서 '은' 이 떠나고 '이' 가 들어온다. 주관적 정서의 세계가 아니라 사실 세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는 문장을 통해 독자들이 작가의 의도에 전부 몰입하였는지는 모를 일이다. 하지만 더 냉혹하고 아득한, 절대로 내일이 올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을 소설 속에서 만날 수 있었을 것이다. 조사 하나가 작가에게 이토록 치열한 고민을 안기니 실로 조사란 몇 개 되지도 않으면서 그 영향은 얼마나 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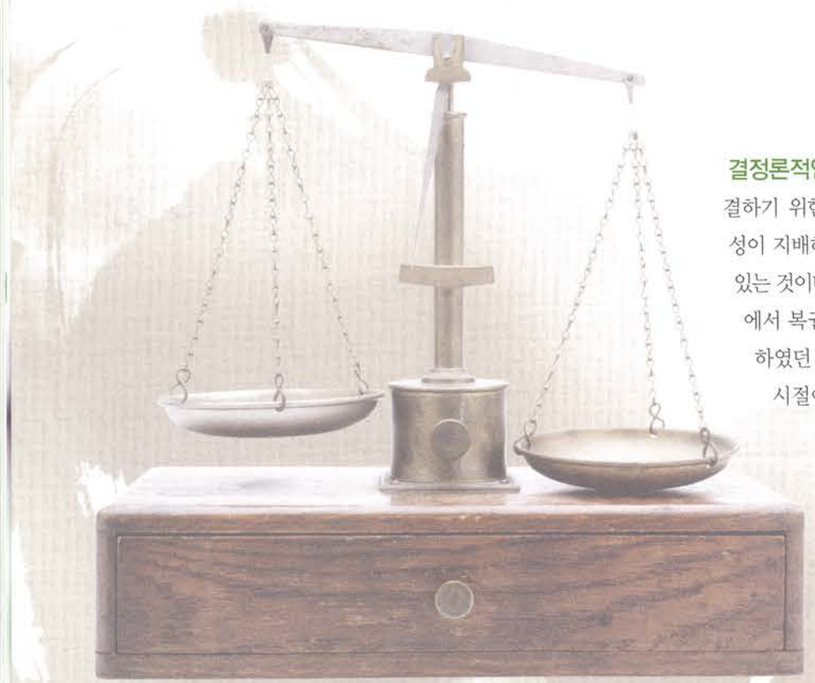
조사는 크게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로 대별되고 그 아래 여러 조사들이 가지를 친다. 단어나 어절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의 관계를 드러내고 내용을 더욱 풍부히 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니 조사를 빼고 말하면 화자간에 말은 통할지 몰라도 뜻은 오락가락 할 것이다. 조사에 의한 이어줌이 없으면 우리의 사유 전체가 흔들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하지만 우리말 조사에 능통하기가 그리 쉬운 일 만은 아니다. 그러니 잘못된 말살이 글살이가 넘친다. 사람에 따라서는 말만 통하면 되지 무슨 문제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그렇기는 한데 자신의 뜻과 생각을 정확하게 알리려면 조사를 잘 활용해야 한다. 어떤 조사로 왼쪽 글 오른쪽 글, 또는 앞말과 뒷말을 연결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언어 효율성이 달라진다. 담배 한 갑을 폐로 밀어 넣게 만든 김훈의 '은' 과 '이' 도 마찬가지 아닐까. 조사로 잇는 우리말의 연결, 어떤 조사로 잇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느낌! 한글의 아름다움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글_ 권의미(방송작가)

세상을 이기는 지혜, 확률

세상을 지배하는데는 주요한 법칙이 있다. 또한 그 중 하나가 확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들 중 하나가 확률이라하니 우리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세상을 이기는 중요한 지혜를 한 가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결정론적인 세상의 수학 법칙과는 달리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수학 이론이 바로 확률이다. 현재를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상이라 하니 우리는 확률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한때 주택복권이 유행하여 일요일 TV 쇼프로에서 복권 추첨을 하였고, 가족오락관의 허참씨도 참여하였던 주택복권은 당시 국민 관심사 중의 하나였던 시절이 있었다. 지난 몇 년 전에는 남녀노소 인생역전을 노리는 로또광풍이 불었다. 당시 우리나라 성인남녀 중 로또 복권 안 사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로또 열풍은 대단했다. 그러면서 100억 이상의 당첨금 못지않게 삼삼오오 모여 회자되던 관심은 당첨확률이었다. 하지만, 당첨확률이 사람이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다 낮다는 수학적인 통계가 알려지면서 로또 사업의 허상이 사회에 드러났다. 아마도 5년마다 이루어지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선거 전에 발표되는 통계 확률 이외에 대다수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확률 법칙이 아니었나 싶다.

이처럼 세상을 지배하는 주요한 법칙 중 하나가 확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옥과 같은 출근시간, 우리가 경험치의 통계를 바탕으로 교통이 원활한 틈새 시간대를 잘 정한다면, 시기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 편하게 또는 조금 빠르게 근무지에 도착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주식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주가 변동과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한창 주가 수익이 높던 시절, 전문투자가의 권유로 무작정 펀드에 가입하거나 주식을 사는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 스스로 경제와 통계확률을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수학적 원리를 매우 적절하게 이용하는 이윤추구 집단으로서 우발적 사고발생의 개연성을 대수법칙으로 측정하여 그 위험 확률을 기초로 보험금과 보험료의 대가적 관계를 추정한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다. 이처럼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들 중 하나가 확률이니 우리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세상을 이기는 중요한 지혜를 한 가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는 확률 법칙 이외에 흥미로운 지구과학의 확률적인 사건 하나를 소개해 보겠다. 필자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과거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과학자이다. 19세기 활발한 산업 활동의 원동력은 화석연료의 사용이다. 이로 인해 급격한 기후변화로 세상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 필자는 과거에 기록된 기후변화를 이해하고 그 원인을 찾는다. 우리가 복잡하게 얽힌 지구 환경 변화를 이해하기 어렵지만,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지구과학적인 사실들이 많다. 그 중 하나가 중생대 말기에 우주에서 온 운석의 충돌에 의한 공룡의 멸망이다. 공룡의 멸망 이후의 포유류 시대에서 세상의 지배자가 된 인류도 이러한 운석 충돌의 재앙을 피해갈 수 있을까. 아마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구와 부딪히는 운석이 상당히 많다. 다만, 대다수 운석이 대기권에서 불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공포심이 없는 것이다. 문제는 운석의 크기이고, 소행성 크기의 운석 충돌 재난을 소재로 한 영화가 소개되어 인기를 끈 적도 있다. 약 한달 전에 원자폭탄 천개의 위력과 맞먹는 소행성이 지구와 불과 7만 킬로미터, 달과의 거리보다 가까운 상공을 지나간 적이 있다. 지구상의 여러 관측소에서 이러한 소행성들의 궤적을 감시하고 있는데, 2036년에 이보다 10배 큰 소행성이 지구에 근접한다고 한다. 지구와의 충돌 확률은 4만 5천분의 1이며, 길을 걷다가 자동차 사고를 당할 확률과 같다고 한다. 로또 당첨보다 우리의 머리 위에 커다란 돌덩어리를 맞을 확률이 더 높으니, 참으로 반갑지 않은 사실이다.

글_ 유규철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연구원)

2036 년에 우주의 한 소행성이 우리의 머리에 떨어질 확률은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도 높다고 한다. 이런점에 미루어보면 우리가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또한 엄청난 확률속에서 살아남은 셈이다.

태양, 막내들의 뜨거운 도전

품질보증팀
오정훈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뚫고 태양의 가족이 된 새내기들. 사회 첫발을 내딛은 지도 어느덧 6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관성과 무사안일은 NO! 풋풋한 모습을 잃지 않고 있는 태양의 막내들을 만나 때론 유쾌하고 때론 거침없는 그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봤다.

품질보증팀
박민기

품질보증팀
신재하

#1. 입사할 당시와 몇 달이 지난 지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A 치열한 경쟁을 통과하고 태양의 가족이 된지 벌써 반년이 훌쩍 넘어 갔네요. 나름 직장생활에 대한 환상도 있었고 꿈도 원대하게 펼치고 싶었지만 이상과 현실은 많이 달라요~~ 흐흐 이게 어른이 되어간다는 걸까?

설계팀
원동억

A 이젠 어느 정도 직장생활에 제법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업무에 매몰되다보면 뒤돌아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나날의 연속이지만 누구보다도 새내기다운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은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태양의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긍지로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태양 화이팅!

영업팀
표성훈

#2. 나 이럴 때 태양맨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

A 태양금속은 국내 제1의 파스너 제조업체잖아요. 55년 역사를 이어온 태양의 가족으로서 긍지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반세기가 기술 창조를 위해 혼신을 다해온 역사라면 미래 50년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위대한 도전' 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도전' 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준비하고 도전해야죠^^

#3 직장내 막내 이래서 좋아요

A 글쎄, 막내라 좋은 점보다는 아직 모든 게 서툴다보니 실수투성입니다. 사실 입사초기에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동료들과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이젠 태양맨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켜봐주시면 반드시 태양의 재목으로 성장할 자신감이 있습니다.

#4. 상사나 선배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무조건 상사가 시키는 일은 해야 한다는 관념은 좀 버렸으면 합니다. 가끔 비현실적인 업무지시나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지거든요.

A 임원분들이 조금만 더 저희 같은 젊은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저희들이 결국 태양의 미래와 비전을 실현시키는 원동력이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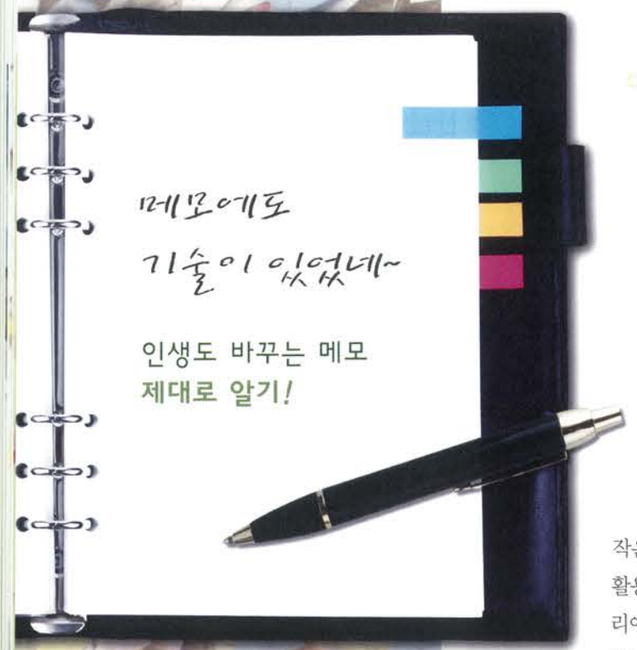
A '직원과 회사, 그리고 직원가족까지 모두 한 가족' 이라는 모토처럼 변치 않는 믿음과 사랑으로 직장생활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술도 좀 사주세요^^

#5. 회사의 도약을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A 무엇보다도 '태양맨' 이라는 자부심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나를 생각하듯 회사를 아끼는 게 '애사심' 의 출발인데 55년 역사를 이어온 태양의 가족으로서 미래를 준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할 생각입니다.

A 현장의 문제를 도전의식으로 돌파하고 끈기와 도전으로 회사 생활에서 또 다른 행복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글_ 편집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잘 하지는 못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메모다. 흔히 메모는 창조의
원천이자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로도 불리지만
누구나 그 결실을 따지는 못한다.
이유는 메모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메모에 대한 고정관념부터 버리자

대다수 사람들은 메모를 전화번호나 이메일과 같은 간단한 정보를 작은 종이에 기록하는 일쯤으로 생각한다.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메모는 활용하기에 따라 그 가치가 크게 달라진다. 누군가에게는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에너지의 원천으로 또는 창조활동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전화번호 메모를 한 통의 전화 후 없애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중요한 인맥관리 소스로 활용하기도 한다. 같은 메모라도 이처럼 가치의 편차가 크게 나뉘기도 하는 것이다.

메모는 왜 할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노! 메모는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머릿속에 모두 기억할 수 있다면 굳이 메모가 필요할까? 엄청나게 쏟아지는 정보들 중에서 가치있는 정보만 쏙 뽑아 기록하고 나머지는 모두 잊어버리고 쾌청한 머릿속을 유지하기 위해 바로 메모를 하는 것이다. 나머지 할 일은 그 정보를 어디에 적어두었는지만 기억하면 그만이다.

메모에도 필살기가 있다

아마 사람의 기록하는 행위는 인류의 시원과 같은 역사를 가졌을 것이다. 오늘날 대학에는 기록관리학이라는 학과도 있다. 하지만 그토록 오래된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메모는 여전히 우리에게 요령부득, 습득하기가 만만치 않다. 그것은 아마 우리가 메모와 관련된 좋은 습관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베스트 메모를 위한 필살기는 바로 올바른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아닐까?

베스트 메모 필살기

메모는 언제 어디서나

메모를 해야 하는 상황은 예상할 수 없을뿐더러 우리를 기다려 주지도 않는다. 책상 한 켠에는 언제나 메모지와 펜을 놓아두는 것은 기본. 외출시에도 작은 수첩과 펜을 반드시 지참한다. 집에서는 화장실이나 침실 머리맡 등 곳곳에 펜과 작게 자른 이면지 등을 놓아둔다.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라

메모는 이 세상에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기록이다. 그러니 메모하는 방법도 자신에게 맞추면 그만이다. 자신만 아는 기호를 사용해도 되고 그림이나 암호를 쓰는 것도 좋다.

핵심만 간단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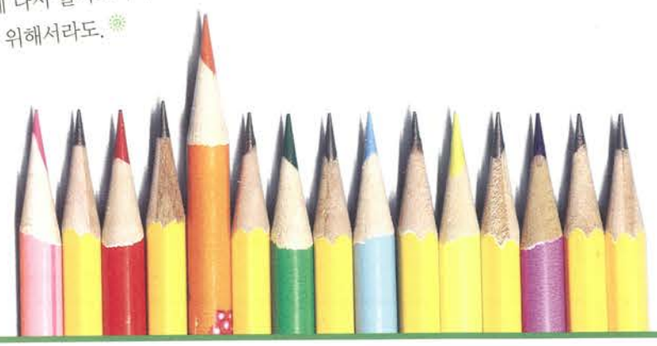
메모는 뒷날을 위해 찰나를 가두는 행위와 같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른 아이디어나 습득한 정보는 나중에 적합한 처리과정을 밟으면 된다. 괜히 중언부언 길게 쓰는 동안 또 다른 찰나는 이미 자취를 감추고 만다.

분류의 미학

대체로 메모의 종류는 업무, 아이디어, 관심분야, 정보, 강의 등 다섯 가지 정도가 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분류해서 한 권의 수첩에 정리하는 것이 좋다. 물론 분류 기준과 형식은 자신에 맞게 하면 된다.

뒤끝이 있어야 좋다

매사가 뒤끝 없는 것이 좋지만 메모는 그렇지 않다. 처음 기록을 할 때는 내용이 가치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메모는 반드시 나중에 다시 돌아보아야 가치를 발한다. 그래서 메모 수첩은 오래 동안 버리지 않는 것이 좋다. 기록성을 위해서라도.



직장인의 메모 요령

✲ 회의 할 때
- 안건을 제목으로 정한다.
- 결정된 사항을 정확히 기록한다.
- 기간과 담당자를 특화시켜 체크한다.

✲ 비즈니스 메모
- 가능한 기호나 암호를 사용하여 핵심만 적는다.
- 대화의 흐름에 따라 기록한다.
- 필요하면 상호 교환하여 보관한다.

✲ 스케쥴 변경
- 원래 내용을 완전히 지우지 않는다.
- 변경 이유를 바로 아래 적어 둔다.
- 대치할 스케쥴을 그 아래 기입한다.

Taeyang + Spring 발길 따라서
아침고요 수목원

눈 밑에 꽃 있네

이른 4월에 찾은 아침고요수목원. 겨울은 새로운 계절에 자리를 내주기 싫은 듯 아직 곳곳에 잔설을 깔아두고 있었다. 하지만 봄의 기지개를 어이 막을 수 있으랴. 5월의 향연을 예고하는 봉우리들은 터질 듯 터질 듯 위태한 것을.....

종이꽃

천상초

좀설앵초

역시 축령산 깊은 계곡의 봄은 도시보다는 느리게 피나보다. 우람한 잣나무 숲에는 여전히 찬 기운이 돌고 봄눈이 내려앉은 산등성이는 마치 만년설을 보는 듯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은 수목원은 때 이른 손님에게 꽃들의 향연 대신에 때를 기다리라는 묵언을 전할 뿐이었다.

하지만 봄의 전령이 한발 빠르게 계절을 알려오듯이 수목원의 꽃잔치도 독자들에게 먼저 예고하는 것이 마땅할 터. 꽃들이 흐드러질 때야 알린다면 꽃 떨어지고 잎이나 보란 말인가? 때 이른 발걸음이 나중에 올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다.

축령산 동쪽 산자락에 위치한 아침고요수목원은 깊은 산속에 있으면서도 봉긋봉긋한 지형을 활용한 덕에 소담스런 멋이 있다. 눈 돌리는 곳마다 발길 이르는 곳마다 모두가 데이트 코스라면 딱 어울릴 표현일까? 물론 유모차를 밀며 가족 나들이를 나온 사람들도 많기는 하지만.

이곳의 절정은 5월이라고 이미 알고 온 터지만 사계절 나름대로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홍보실 직원이 귀띔한다. 잔뜩 물오른 나뭇가지며 잔설을 뚫고 올라오는 야생화 순을 보니 틀린 말은 아닐 듯싶다. 만개한 꽃보다는 곧 터질 봉오리나 살짝 내민 여린 순들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4월이 오히려 제철이겠다.

우리 고유의 정원에 대한 한 교수의 열정으로 만들어진 이곳은 시골 고향의 정취를 만끽하기에 그만이지만 자연생태 학습장으로도 손색이 없다. 가평이라는 좋은 접근성 또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유 중 하나다. 5월, 수백 수천의 꽃들을 다 보고 싶다면 아침고요수목원으로 가자. www.morning calm.co.kr

기다려라.
아직은 인고의 시절이니 머잖아
온갖 꽃들과 새들이 깨어나
너의 눈과 귀를 멀게 하리라

멀리 산등성이에 눈이 보인다. 하지만 곧 이곳은 수만의 꽃들로 넘쳐나리. 뒹굴뒹굴 나른한 오후를 즐기는 사람들이 부러울 정도였다.

손주를 돌보는 할아버지의 등 위로 따사로운 햇살이 나린다. 하늘에서 보면 수목원도 저 할아버지의 등처럼 보일 것 같은 상상ㅎㅎ

미니어처로 꾸며 놓은 야생화전시실. 금방이라도 고향의 봄 노래가 들려올 듯하다.

잔설을 뚫고 올라 온 어린 순. 탄생을 축하해--

개봉박두 만화방창! 지금의 풍경이 흑백사진이라면 5월 이곳을 찍으면 칼라사진일거라는 역측도 해본다.

연인들의 천국. 주변엔 펜션들도 많다ㅋㅋ

짝짝짝! 새로이 태양식구가 되신 신입사원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며 아울러 회사와 국가경제의 미래를 짊어 질 양 어깨를 응원합니다. 승진과 전보로 더욱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되신 사우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하세요 ^^

따뜻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새싹들처럼 우리도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
여유로운 아침을 시작해 보는건 어떨까요?
우리 태양가족 사우여러분들도 따뜻한 봄처럼 싱그럽고
활기찬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발령

01/12
설계팀 조동환 과장 선행연구개발팀 전보
선행연구개발팀 이치한 사원 설계팀 전보

01/23
정동찬 이사 장가항 공장 건축 추진 T.F.T PM겸무
정우시 총경리 장가항 공장 건축 추진 T.F.T 중국 행정업무 겸무
전략기획팀 최동배 차장 장가항 공장 건축 추진 T.F.T 국내 행정업무 겸무
전략기획팀 김현철 과장대리 장가항 공장 건축 추진 T.F.T 국내 행정업무 겸무
중국2공장 김광두 차장 장가항 공장 건축 추진 T.F.T 재무담당 겸무
설비기술과 이상규 과장 장가항 공장 건축 추진 T.F.T 생산기술담당 겸무 파견

02/02
업체협력팀 조혜진 사원 총무팀 전보

03/23
품질보증팀 어기준 사원 중국 장가항법인 파견근무

입 사

01/12
김영록 사원 입사 / 중국 장가항법인 주재원 근무

03/02
이병욱 촉탁사원 입사 / 업무개선실장 근무

03/23
한준만 촉탁사원 입사 / 중국 연대법인 파견근무

NEWS

02.03 경기도지사 당사 방문

김문수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의원 및 전태헌 안산부시장, 진기우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부지역본부장 등 30여명이 당사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현 경제위기속에서 경기도내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범기업을 방문하여 그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며, 이날 행사를 통해 한우삼회장은 현 경제위기 타개를 위하여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고, 회사 홍보영상 및 벤치마킹룸, 생산현장을 시찰하였다.

01

02.23 중국 연대 북산구 관계자 방문

중국 연대시 복산구 정부 당서기 왕왈일(王曰日)외 2명이 당사를 방문하였다. 중국 연대시는 현재 당사 중국법인이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생산현장이 진출하여 있는 곳으로 이번 방문 목적은 본사 견학 및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함이며, 회사소개 및 벤치마킹룸, 시험실, 생산현장을 견학하였다.

03

02

02.05 (주)만도 방문

지난 2월 5일 (주)만도 원주사업부 한낙관전무 외 2명이 현재 진행중인 정밀단조 가공품 개발 현황 파악 및 신규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 협의차 당사를 방문하였고, 시험실, 벤치마킹룸, 생산현장을 둘러보았다.

02.27 대외표창 수상자 전수식

지난 2월 27일 사외 표창수상자에 대한 전수식이 한성훈 부사장 및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경기도지사 표창은 생산1과 김용재 대리, 한국도금공업협동조합 표창은 표면처리과 임표택조장,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표창은 경영환경팀 강성실사원, 한국화스너공업협동조합 표창은 개발팀 이영석대리가 수상하였다.

04

우리 회사에는 지난 세 달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회사의 이런저런 소식... 한눈에 알아보자!!!

05

02.27 33년차 노동조합 대의원대회 및 위원장 이취임식

지난 2월 27일 태양금속공업(주) 노동조합 제33차 정기대의원대회 및 위원장 이취임식이 있었다. 이날 회사에서는 한성훈부사장 및 임원이 참석하였다. 한성훈 부사장은 축사를 통해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사가 하나가 되어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하였고, 정년퇴직하는 이병욱위원장의 그 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와 새로 취임하는 송병천 신임위원장에게 축하의 인사를 하였다. 대회가 끝난 후 마련된 다과회장에서 참석한 내외빈과 간단한 다과를 가진 후 대회식을 마무리 하였다.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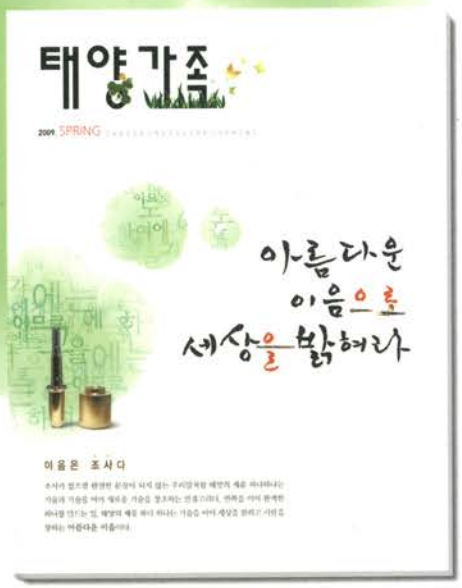
03.03 납세자의 날 포상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당사 한우삼회장은 성실한 납세의 의무이행 및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솔선수범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시상식은 안산세관에서 있었으며, 당사 한성훈부사장이 참석하여 표창장을 전수하였다.

03.20 제44기 정기주주총회

지난 3월 20일 본관동 3층 대강당에서 제44기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정기주주총회에서 제44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이사:김성득),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사외이사:김성득),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안건이 원만하게 가결되었다. 한우삼회장은 참석한 주주에게 "금년에도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매우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전임직원이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여 새로운 시장개척과 차세대 신제품 개발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여 이 난관을 극복하고자 하며, '위기는 기회'라는 인식아래 원화약세의 효과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신규거래처를 발굴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내년 정기총회에서는 훌륭한 성과와 실적으로 주주의 성원에 보답하겠다"며 인사말에 갈음했다. 한편 2008년도 당사 매출액은 2,073억원, 영업이익 24억원, 당기순이익 21억원을 달성하였다.

07



태양가족은 모든 임직원은 물론 온 가족이 만들어 가는 우리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주인인 만큼 누구나 언제든지 참여하여 글도 쓸 수 있고 사연도 보낼 수 있습니다.
좀 더 아름답고 멋진 사보가 될 수 있도록 태양인 여러분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특히 생활속에서 경험하는 소중한 이야기나 문학적인 글을 환영합니다. 기고나 제보하시는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